Best Partner
For Your Success

ZENIEL 2026 AUTUMN
VOL.112

제니엘



Contents

ZENIEL FAMILY

CONGRATULATIONS 03
2026년 3분기 우수사원

두산전자 익산공장 04
일부 공정을 넘어, 전체 공정을 책임지다

아주대학교의료원 간호보조용역사무실 08
직원을 살피는 일이 곧 현장을 지키는 일

KB신용정보 전자화작업장 12
금융 기록을 디지털로 잇는 현장

ZENIEL STORY

CEO LETTER 16
사람의 성과를 키우는 혁신을 시작합니다

ZENIEL CULTURE 20
2026 제니엘 상반기 문화행사

ISSUE 22
2026 제2회 'ZAIC(Zeniel GenAI Challenge)' 개최

WELCOME 24
2026 제니엘 상반기 공채 신입사원

SPECIAL HONOR 28
아주대학교의료원 개원 32주년 기념 의료원장상 수상

ZENIEL PLUS 29
제니엘플러스 '능력향상 훈련' 수료식

TREND 30
생성형 AI, 안전한 활용을 위한 3가지 수칙

ZENIEL NEWS 31











발행일 2026년 9월 29일 **발행인** 박인주 **발행처** ㈜제니엘 www.zeniel.com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402 제니엘빌딩 **TEL** 02. 580. 0114 **FAX** 02. 580. 0104
전략기획실 jminsoo7083@zeniel.co.kr **기획·편집** PEOPLE PAGE(대표번호 02. 6674. 0111)

사보 <제니엘>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필자의 의견이며, 제니엘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제니엘>에 실린 글과 사진은 사전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제니엘그룹 우수사원을 소개합니다!

뛰어난 성과로 제니엘그룹을 빛낸
2026년 3분기 우수 인재를 소개합니다.

제니엘그룹은 구성원의 소속감과 성취감을 높이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매월 1일, 뛰어난 성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구성원을 우수사원으로 선정해 발표하고 격려한다. 우수사원으로 선정된 이에게는 상장과 함께 제니엘 복지몰 '윌샵'에서 사용할 수 있는 5만 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를 제공한다. 선정 기준은 제니엘그룹의 3가지 핵심정신인 '도전하는 나', '책임지는 나', '함께하는 나'를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가치를 실천하는 구성원은 곧 제니엘그룹의 자부심이 된다. 서로 협력하며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간다면 누구나 우수사원이 될 수 있다. 2026년 3분기 제니엘그룹의 우수사원으로 선정된 모든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 제니엘그룹은 앞으로도 구성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더 큰 성장을 이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HR-Biz사업부
박경화 세라젬
오선형 세라젬
이찬향 천안일자리센터

컨택센터사업부
심소희 KB신용정보 전자화작업장
최연이 서울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의료사업부
김세희 강동성심병원 콜센터

제조사업부
김선희 부산 백병원
김현식 코스비전
박덕윤 두산전자 증평공장



HR-Biz사업부
박영진 삼성전자 전자랜드
우복희 천안일자리종합지원센터
정유정 천안일자리종합지원센터

제니엘메디컬
정재훈 중앙대학교병원
최명옥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컨택센터사업부
고정옥 신한은행 여신센터
이보정 신한은행 여신센터

제조사업부
소현아 두산전자 익산공장
심재석 세일병원
유길주 아모레퍼시픽



HR-Biz사업부
김종우 삼성전자 전자랜드

의료사업부
허선진 분당차병원 여성병원 원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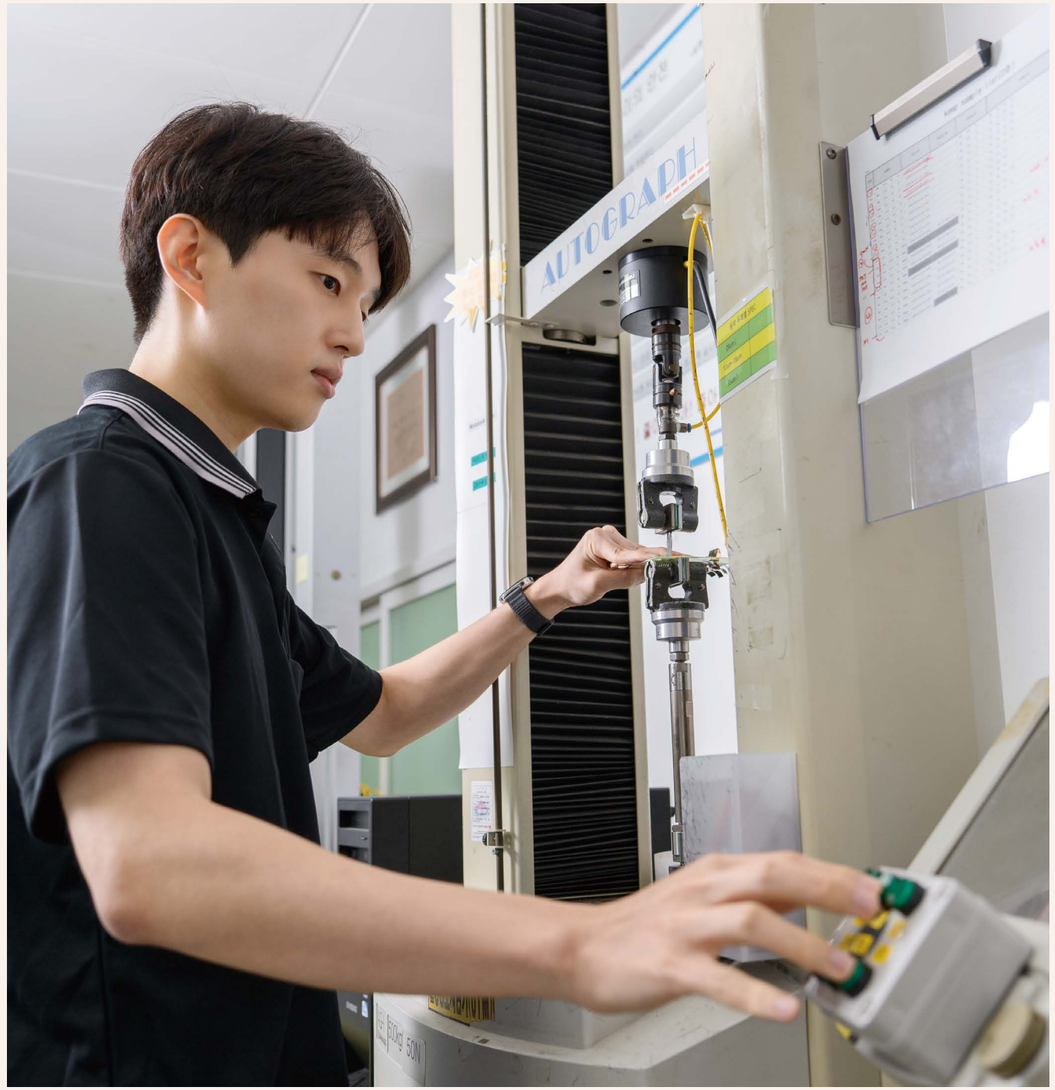
컨택센터사업부
김병권 이스트소프트 고객지원팀
박소담 우아한형제들 운영지원센터
이진희 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특별자치도지부 콜센터
최길수 한국무역정보통신 공동인증센터

제조사업부
김수진 두산전자 김천CCL
사석원 코스비전
조선미 롯데카드 CRM 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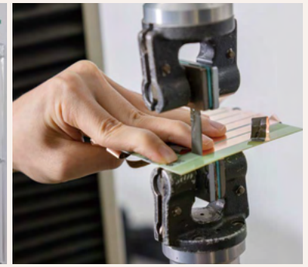
일부 공정을 넘어, 전체 공정을 책임지다

두산전자 익산공장

2019년부터 두산전자 익산공장의 일부 공정을 맡아 온 제니엘 제조사업부는 올해 7월 제조 공정 전반을 책임지는 완전도급 체계로 전환했다. 제품 생산은 물론 설비와 안전, 인력까지 다양한 요소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하는 현장. 제니엘 최초의 완전도급 사업장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는 익산공장의 이야기를 들여다봤다.











공장 전체를 책임지는 새로운 역할

두산전자 익산공장은 얇은 동박과 절연층을 결합한 유연한 전자 소재인 FCCL(연성동박적층판)을 만든다. FCCL은 자동차 전장 부품과 통신기기 등에 사용되며, 특히 폴더블 스마트폰처럼 반복적인 굽힘이 필요한 제품에 폭넓게 활용된다. 이러한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익산공장에 최근 큰 변화가 있었다. 일부 공정을 담당해 온 제니엘 제조사업부가 올해 7월부터 제조 공정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완전도급 체계로 전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생산뿐 아니라 안전·보건·환경, 인력 운영과 각종 지원 업무까지 관리해야 할 영역이 넓어졌다. 유택열 공장장이 전환 이후 가장 크게 체감한 변화는 '설비에 대한 책임'이다.

"기존에는 생산에 집중하면 됐지만, 이제는 설비 프로그램 오류로 생산이 중단되거나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경영 지원 업무와 각종 인허가·등록처럼 이전에는 맡지 않았던 영역도 함께 살펴야 하죠. 새로운 역할을 하나씩 경험하며 운영 노하우를 쌓아 가는 중입니다."

이처럼 책임 범위가 넓어진 만큼 익산공장의 현장 전문성도 강화되고 있다. 안전·보건·환경 관리와 설비 유지·보수 분야의 전문 인력을 보강하며 초기 위험 요소를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확대된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려면 각 공정의 상황을 하나의 흐름으로 바라보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유택열 공장장은 매일 오전 8시 10분 각 공정의 리더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업무 현황을 공유한다. 부서 간 협업이 막히는 지점이나 의견 차이를 미리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다.

"평소 작업환경에서 발생하는 일은 아주 작은 변화라도 꼼꼼하게 공유하고 한 번 더 살펴보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책임은 가장 큰 부담인 동시에 공장장으로서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얇고 정밀하게, 품질을 완성하는 현장



FCCL은 어떤 과정을 거쳐 하나의 전자소재로 완성될까. 현장의 주요 제조 공정은 코터와 배치, 플라즈마 순으로 이어진다. 먼저 코터 공정에서 동박 위에 절연 기능을 하는 코팅액을 균일하게 입힌다. 이어 배치 공정에서는 코팅된 동박을 오븐에 넣고 열을 가해 코팅층을 경화한다. 마지막으로 플라즈마 공정을 거치면 FCCL이 완성된다. 이 가운데 유택열 공장장이 가장 중요하게 꼽는 공정은 코터다.

"코팅층이 부위에 따라 두껍거나 얇아지지 않도록 코팅액을 전체에 균일하게 입혀야 합니다. 그래야 배치 공정에서도 일정하게 경화할 수 있죠. 오븐에서 코팅층이 얼마나 균일하게 경화됐는지에 따라 제품의 품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공정의 출발점인 코터를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비의 정밀한 작동만큼 작업자의 숙련도가 중요한 공정도 있다. 코터와 플라즈마는 설비 중심으로 운영되는 비중이 큰 반면, 배치 공정에서는 작업자의 세심한 손길이 품질을 좌우한다.

"배치 단계에서는 작업자가 오븐에 제품을 넣기 전 소재를 고르게 펴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마치 책장을 한 장씩 넘기듯이 섬세한 기술이 필요하죠. 자동화된 설비가 있어도 제품의 완성도는 결국 사람의 경험과 집중력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역량을 키우고, 안전을 지키다

완전도급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작업자 역시 자신의 공정만 아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익산공장은 여러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 인력을 육성해 현장의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생산 계획에 따라 공정별 작업량은 달라질 수 있지만, 모든 상황마다 인력을 재배치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다면 물량이 몰리거나 결원이 발생했을 때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다기능공 육성은 단순히 인력을 유연하게 배치하기 위한 전략만은 아닙니다. 구성원에게 새로운 업무를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의 전문 영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지요. 이미 배치와 플라즈마 공정에서는 작업자들이 서로의 업무를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큽니다. 올해 새롭게 맡은 코터 공정 역시 안정화가 진행되면 이러한 역량 확대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역량을 넓히는 것만큼 중요한 원칙도 있다. 바로 안전이다. 유택열 공장장은 "생산성과 효율을 아무리 높여도 안전이 무너지면 지속 가능한 공장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증명하듯 현장에는 무사고 일수를 알리는 현황판이 설치돼 있다. 취재 당시에는 2016년 4월 16일부터 이어진 3,779일의 기록이 표시돼 있었다. 오랜 기간 쌓아 온 숫자에는 안전수칙을 지키고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찾아 개선해 온 현장의 노력이 담겨 있다.

"지금과 같은 무사고 기록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안전을 개인의 주의력에만 맡기지 않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작업표준과 안전수칙을 명확히 하고, 구성원이 반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야 하죠.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공정별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며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생산량과 납기도 중요하지만 구성원들의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현장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MINI INTERVIEW

현장관리자 TALK

두산전자 익산공장 유택열 공장장

"퇴근길에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언제나 제1의 목표입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작업 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본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료를 향한 작은 배려가 일터를 즐거운 장소로 만들고, 우리가 그곳에서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은 나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완전도급 체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백오현 생산팀장, 이시우 과장, 유택열 공장장, 노시형 U&M팀장



직원을 살피는 일이 곧 현장을 지키는 일

아주대학교의료원 간호보조용역사무실

병원에는 의료진 곁에서 원활한 운영을 돕는 다양한 구성원이 있다. 환자 이송과 외래 진료 지원, 진료과 행정 등 담당 업무는 서로 다르지만, 이들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병원의 하루가 차질 없이 이어진다. 아주대학교의료원 간호보조용역사무실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현장을 뒷받침하는 제니엘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병원의 하루가 멈추지 않도록

환자가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진료를 마치고 돌아가기까지, 눈에 보이는 진료 과정 이면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 업무가 있다. 아주대학교의료원 간호보조용역사무실의 제니엘 직원들은 환자 이송과 외래 진료 보조는 물론, 진료과 행정, 임원 수행 등 병원 곳곳에서 필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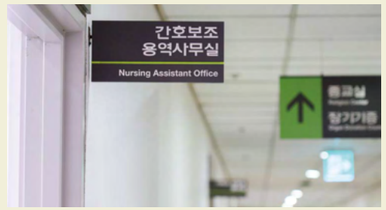
환자 이송 담당자는 병동과 검사실, 수술실 등 환자의 모든 동선을 안전하게 책임진다. 외래보조 인력은 진료 현장이 막힘없이 돌아가도록 돕는다. 교실비서는 진료과와 교수의 연구·교육 행정을 뒷받침하고, 임원 수행팀은 주요 임원의 일정과 이동을 원활하게 관리한다. 비록 진료의 전면에 서지는 않지만, 이들의 빈자리는 곧 병원의 일상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간호보조용역사무실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각 부서에 필요한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고 결원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다. 김현숙 실장은 직원들의 근무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공백 발생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해 병원의 일상이 순조롭게 이어지도록 역할을 하고 있다.



"아주대학교의료원은 결원이 발생했을 때 기존 인원에게 업무를 더 맡기기보다 대체 인력을 투입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어요. 단 하루도 예외는 없습니다. 다만 3교대 근무가 이루어지는 병원 현장의 특성상 예상치 못한 상황은 언제든 생길 수 있죠. 새벽이나 주말에도 어느 파트에서 결원이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즉시 근무 상황을 확인하고 충원합니다. 평소 직원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관계를 잘 유지해야 신속하게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일입니다(웃음)."

위기의 순간, 드러난 책임감

병원은 환자와 함께 움직이는 공간인 만큼 세심한 태도가 필요하다. 김현숙 실장이 직원들에게 거듭 강조하는 것도 현장을 주의 깊게 살피는 자세다. 그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사례가 있었다. 한 외래보조 직원이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던 중 엘리베이터 앞에서 응급상황에 놓인 환자를 발견해 곧바로 주변 의료진에게 알린 것이다. 덕분에 의료진은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평소 쌓아 온 대응력은 지난 7월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





"당시 응급실과 수술실의 이송 직원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하고 현장 통제와 우회 동선 안내까지 각자의 역할을 침착하게 수행했습니다. 이후 의료진으로부터 칭찬과 포상도 받았습니다. 간호사분들이 제니엘 직원들에게 삼계탕을 대접하고 수박을 나누며 격려해 주셨죠. 직원들의 침착한 대응이 의료진의 신뢰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호평은 조직 차원의 공식 인정으로도 이어졌다. 아주대학교의료원은 매년 우수 사원을 선정해 포상하는데, 최근에는 협력업체 소속 직원까지 선정 대상을 확대하면서 제니엘 직원도 의료원장상을 받았다. 김현숙 실장은 이를 직원들이 평소 현장에서 보여 준 책임감과 노력의 결과로 꼽았다.

"의료 현장은 다른 업종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환자를 가까이에서 돕고 살피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에 대한 사명감을 갖게 되거든요. 평소 일하는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던 책임감과 자긍심이 위기 상황에서 발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자라는 현장, 함께 단단해지는 조직

김현숙 실장이 아주대학교의료원의 간호보조용역 현장을 맡은 지도 어느덧 6년. 그에게 이 시간은 단순히 한 곳의 현장을 관리해 온 기간만은 아니다. 구성원이 낯선 환경에 적응하고 자신의 역량을 키워 갈 수 있도록 돕는 일 역시 자신의 중요한 역할임을 깨닫는 과정이었다. 관리자로서 그가 오랫동안 고민해 온 과제도 '사람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맞닿아 있다. 업무 자체는 시간이 지나면 익힐 수 있지만, 동료들과 관계를 맺고 새로운 조직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입사 후 4일, 일주일, 한 달, 3개월이 되는 시점마다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맡은 업무는 잘 익히고 있는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일터에서 드러나지 않는 사정까지 헤아리려고 해요. 필요하면 먼저 휴가를 권하거나 헬퍼를 준비해서 쉴 수 있도록 합니다. 직원들이 회사가 나를 신경 쓰고 돌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김현숙 실장이 생각하는 좋은 현장은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며 일할 수 있는 곳이다.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환자와 병원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는 믿음에서다. 이러한 기반을 만드는 데에는 제니엘의 지원도 힘이 된다. 본사 또한 인력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근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성과금 제도는 직원들에게 새로운 동력이 됐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변화를 제도로 연결하는 과정이 구성원의 만족과 의욕을 높여주었죠.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 역시 직원들에게는 믿고 의지할 수 있고, 병원에는 신뢰받는 관리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인력 공백이나 구성원 간 소통 문제를 사후에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 발 앞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한 사람의 적응을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더해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자리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일. 김현숙 실장이 아주대학교의료원에서 만들고 싶은 현장은 사람의 성장이 다시 조직의 힘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일터다.



왼쪽부터) 정혜분, 박은혜 매니저, 윤혜림, 김현숙 실장, 오혜인, 강지은, 서유리

서로 믿고 존중하며,
다 같이 성장하는 매일을
만들어갑시다!



현장관리자 TALK

아주대학교의료원 간호보조용역사무실 김현숙 실장

"늘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업무 특성상 쉽지 않은 순간도 많고, 환자와 보호자를 직접 응대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성장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금융 기록을 디지털로 잇는 현장

KB신용정보 전자화작업장

은행에서는 하루에도 수많은 종이문서가 만들어진다. 고객의 정보가 담긴 서류는 전자화작업장에서 디지털 기록으로 전환된다. KB신용정보 전자화작업장은 하루 평균 56만 장의 문서를 전자화하며 KB국민은행의 문서관리를 뒷받침하고 있다. 방대한 물량 속에서도 정확성과 보안을 지키는 제니엘 직원들의 현장을 살펴본다.



한 장의 종이가 디지털 기록이 되기까지

KB신용정보 전자화작업장의 하루는 늦은 밤, 전국 KB국민은행 영업점에서 배송된 서류를 인수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사전분류팀은 도착한 자료의 종류와 순서를 확인하고 정리한다. 이후 스캔팀이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한다. 이 과정에서 11대의 스캐너가 하루 약 56만 장을 처리한다. 스캔이 끝나면 내용·품질검사팀에서 자동 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의 기울기와 채도·명도 등을 확인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교정·검수팀에서 누락된 정보 등을 한 차례 더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원본과 대조해 오류 여부를 다시 살핀다. 검수가 끝난 문서에는 고유 바코드를 부여해 종이 원본과 전자문서를 정확히 연계하고, 이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최종 검수를 마친 전자문서를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으로 모든 과정이 마무리된다.



전자화작업장에서 다루는 문서에는 계좌·예금 관련 서류와 실명 확인 서류, 신분증 사본 등 고객의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다. 작은 누락이나 오류도 금융 기록의 정확성과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종이문서를 전자 데이터로 전환하는 전 과정에는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다. 장지수 소장은 여러 단계를 거치는 작업 특성상 어느 한 파트도 독립적으로 완성될 수 없다고 말했다.

"각자의 역할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공정 간 연계가 중요하지요. 한 사람이 놓친 작은 오류가 다음 단계로 이어져 전체 업무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업무뿐 아니라 앞뒤 공정의 흐름까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확성과 보안의식으로 완성하는 품질



전자화작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본과 전자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처리하는 일이다. 장지수 소장은 "많은 문서를 빠르게 처리하는 것보다 문제없이 전자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들려준 이야기는 이러한 '정확성'에 대한 집념을 잘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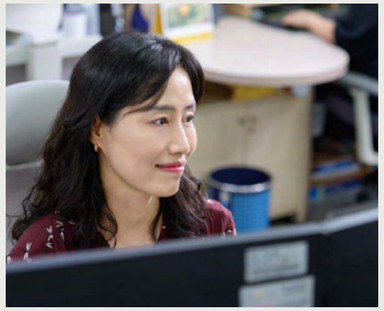
"구겨진 문서는 한 장 한 장 펴고, 찢어진 부분은 손수 다시 정리해요. 필요하다면 다리미까지 사용하며 스캔하기 좋은 상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오류가 발견되면 해당 문서를 바로잡는 데 그치지 않고 원인을 확인해 작업자와 공유한 뒤 필요한 경우 업무 기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품질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원칙은 '보안'이다. 작업장에서는 출입자를 통제하고 보안구역을 관리하는 한편,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전화 카메라 제어 시스템도 운영한다. 직원은 입사와 동시에 보안 통제를 적용받으며, 퇴사할 때까지 이를 유지한다. 개인정보 보호교육도 매월 진행한다. 교육 내용을 정리해 일지를 작성하고 구성원들과 공유하며, 일상 속에서 보안수칙을 익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다양한 시스템과 교육으로 보안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를 실제로 지키고 작동하게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일 터. 장지수 소장은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보안의식을 가장 중요한 보안 장치로 꼽았다.

"보안을 특정 담당자의 업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도 결국 현장에서 직접 문서를 다루는 사람의 보안의식이 정보 유출과 보안 사고를 막는 가장 강력한 예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업이 함께 성장하는 현장



2023년 6월, KB국민은행 이미지실의 문서 전자화 업무가 KB신용정보 전자화작업장으로 이관되면서 분류·스캔·검수·등록을 아우르는 운영 체계가 마련됐다. 그리고 이듬해인 2024년에는 KB신용정보가 전자문서 부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 표창은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에 기여한 전자문서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한 포상이었다. 전자화작업장 자체가 수상 주체는 아니지만, 문서의 전자화 업무가 이곳에서 이뤄지는 만큼 현장의 성과도 수상에 기여한 셈이다. 장지수 소장은 안정적인 운영에 집중했던 사업 초기에 거둔 성과인 만큼 뿌듯한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제는 동종 금융업계의 전자화작업장 관계자들이 운영방식을 배우기 위해 견학을 올 만큼 현장 노하우를 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장지수 소장이 바라보는 다음 단계는 업무 영역을 넓혀 직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장의 운영 흐름을 살피며 확장할 수 있는 분야를 찾고, 이를 실제 과제로 연결할 방법을 꾸준히 고민하고 있다. 그중 구체화된 사례가 퇴직연금 관련 서류의 전자화다. 현재 KB신용정보와 함께 전산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11월부터 종이로 보관해 온 퇴직연금 서류를 전자화하는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새로운 업무가 늘어나면 직원들도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역량을 키울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사에게는 신뢰받는 사업장으로, 직원들에게는 오래 함께하고 싶은 지속 가능한 현장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전자화작업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반은 결국 사람이다. 한 장의 문서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태도,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가 현장의 경쟁력을 만든다.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문서관리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전자화작업장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MINI INTERVIEW



현장관리자 TALK

KB신용정보 전자화작업장 장지수 소장

"지금까지 우리가 이룬 성과의 중심에는 언제나 직원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고 서로의 업무를 존중하며 함께해 주셨기에 지금의 작업장이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를 믿고 배려하며 더 좋은 현장을 꾸려 나갔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일하며 자신의 노력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현장을 발전시키는 데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 영역을 넓혀가며
지속 가능한 현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박 인 주
제니엘그룹 회장

사람의 성과를 키우는 혁신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제니엘그룹 임직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뿌리고 가꿔 온 것들을 잘 거두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히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사보에서 저는 새로운 시대에는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리더가 되어야 하며, '데이터'의 중요성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뒤 몇 달 동안 저는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지난 30년 동안 쌓아 온 경험과 데이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것은 연결, 즉 '이음'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남은 시간, 저는 이 연결의 의미를 한 번 더 깊게, 그리고 넓게 되새기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왜 하는가?'라는 본질에서부터 시작하여, 일하는 방식, 사업부와 사업부 사이 시너지, 그것이 새로운 기술로 이어지고,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왜 하는가?' 그 본질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첫째, 업(業)의 본질에서부터 나의 일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왜 하는가', '우리 업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묻고, 사업의 근본적인 핵심 가치를 이해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업(業)의 본질은 고객사가 오롯이 핵심분야에 집중하도록, 맡은 '일'을 전문가로서 완수하여 고객의 신뢰를 얻고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최근 임원 워크숍에서 각 법인과 사업부는 저마다 업의 본질을 다시금 정의하고 그에 따른 사업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 각 조직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변화는 이 본질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본질을 통한 원점사고를 할 때, 우리는 각자의 '일'과 '역할'을 명확히 정의할 수 있고, 그 위에서 더 큰 시장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나의 일하는 방식을 정리하고 단순화해야 합니다.

자동화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새로운 도구를 서둘러 들이기 전에, 먼저 없애야 할 일을 없애고 일을 단순화해야 합니다. 아무도 읽지 않는 보고서, 같은 내용을 여러 양식에 반복해 옮겨 적는 일, 결론 없이 되풀이되는 긴 회의. 이런 일들은 아무리 정교하게 자동화해도 낭비를 더 빠르게 반복할 뿐입니다. 없애고, 합치고, 단순화하고 표준화한 다음에야 비로소 기술이 제 힘을 발휘합니다.

셋째, 사업부와 사업부 간 시너지를 내야 합니다.

한 부서가 가진 정보가 그 부서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콜센터에서 고객과 나눈 상담 데이터가 쌓이면, 그 안에서 무엇이 실제 필요한 요청인지를 가려내고, 다른 사업부의 서비스로 자동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복된 확인 절차가 사라져 비용은 줄어들고, 고객이 체감하는 속도는 빨라집니다. 하나의 정보가 다음 부서로 연결되어 시너지를 낼 때, 우리는 같은 자원으로도 훨씬 큰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넷째, 그 모든 일이 새로운 기술로 이어져야 합니다.

본질을 세우고, 일하는 방식을 정리하고, 사업부 사이를 이었다면 이제 그 위에 기술을 얹을 차례입니다. 순서가 여기까지 왔을 때 비로소 기술은 제 힘을 발휘합니다. AI를 활용한 자동화는 이미 AX-TF를 통해 첫걸음을 뗐습니다. 이제 여러분 각자가 자기 일을 정리하고, 그 일을 AI 자동화로 이어갈 차례입니다.

다만 기술을 얼마나 많이 활용했는지, 몇 개의 자동화를 실행했는지는 성과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느냐입니다. 일한 시간이나 활동의 양이 아니라,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나누고 그 결과가 성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처리 시간이 줄었는지, 오류와 재작업이 사라졌는지, 애써 만든 결과물이 다음 사람의 판단으로 온전히 이어졌는지. 그 변화가 곧 자동화의 성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이 흐름을 가로지르며 돕는 기반일 뿐, 최종 판단과 승인,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언제나 사람이 집니다. 잘하는 구성원은 더 크게 키우고, 어려움을 겪는 구성원은 교육으로 육성하여 함께 이끌어 가겠습니다. 새로운 도구를 잘 활용하는 사례는 마땅히 인정하고 널리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잘되지 않더라도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일에 처음부터 익숙한 사람은 없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대체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의 성과를 확대하는 운영 기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해의 남은 시간, 저는 여러분께 네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반복하는 일 가운데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 주십시오. 같은 자료를 여러 번 옮겨 적고 있다면 그 지점을 알려 주십시오. 새로운 도구가 어렵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청해 주십시오. 모르는 것은 결코 흠이 아닙니다. 그리고 곁의 동료가 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함께 살펴봐 주십시오**. 이 작은 관찰과 손길 하나하나가 모여야, 우리가 그리는 '이음'이 현장에서 실제로 완성됩니다.

"**사람이 곧 자산입니다.**" 저는 이 원칙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가 내부에서부터 이 변화를 충분히 경험하고 검증한다면, 그 역량은 우리가 고객에게 건네는 새로운 가치로 이어질 것입니다.

풍요로운 가을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결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의 성과가 성장할 수 있는 운영 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라서 더 특별했던 하루

2026 제니엘 상반기 문화행사

기업의 문화행사는 구성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서로 소통하며 유대감을 쌓는 계기가 된다. 제니엘도 구성원들이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나누고, 동료 및 가족과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문화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2026년 상반기에는 공연과 영화 관람을 비롯해 베이킹, 요리 실습, 도예 체험 등을 진행하며 직원들과 즐거운 시간을 나눴다. 각 사업부에서 마련한 다채로운 프로그램 현장을 소개한다.



제조사업부

맛있는 식사와 공연으로 가까워진 우리

날짜 26.04.30.THU
장소 남포동 쿠우쿠우 & 남포동 조은극장
참석 신한카드, 부산백병원, 세방전지 등 우수 현장 직원 26명
내용 초밥 뷔페에서 저녁 식사 후 지난해 설문조사에서 선호도가 높았던 연극 <신바람삼대> 관람, 기념촬영 및 기념품 증정



의료사업부

달콤함을 만들고 행복을 굽다

날짜 26.05.16.SAT
장소 범계역 퍼스트아카데미 & 인근 샤브샤브 식당
참석 한림대성심병원, 아주대병원, 김포우리병원, 중앙대광명병원 임직원 및 가족 20명
내용 스모어 쿠키 2종(플레인·초코) 만들기 및 포장, 허브티 세트 증정, 단체 샤브샤브 점심 식사

HR-Biz사업부

흙을 빚으며 잠시 쉬어간 하루

날짜 26.05.28.THU
장소 신라스테이(뷔페) & 인근 도예 스튜디오
참석 일자리센터, 세라젬, 삼성전자 등 전문직 사원 및 파트너
내용 신라스테이 뷔페에서 식사와 함께 기념품을 증정하고, 인근 스튜디오에서 물레 체험을 포함한 원데이 도예클래스 진행





제니엘휴먼

한 편의 영화가 더해준 일상의 쉼표

날짜 26.05.21.THU
장소 영화관 & 한정식 식당 & 카페
참석 오리온, 신세계INT, 한섬 등 현장별 선정 우수 전문직 사원
내용 리클라이너 소파 상영관에서 영화 <마이클> 관람, 단체사진 촬영 및 한정식·카페 디저트 식사, 기념품(텀블러) 증정

컨택센터사업부

가족과 함께 차린 맛있는 추억

날짜 26.06.27.SAT
장소 요리클래스 스튜디오
참석 7개 현장 전문직 사원과 연인·가족 등 총 14명
내용 사전 초대장 및 기념품 준비, 박춘홍 대표의 자필 감사카드 전달, 콰트로 치즈 파스타·콥 샐러드 원데이 요리클래스 진행



2026 Zeniel GenAI Challenge

제니엘그룹 생산성 향상 대회



진행 개요

행 사 명 | 2026 제 2회 ZAIC(Zeniel GenAI Challenge)
- 부제 : 제니엘그룹 생산성 향상 대회

참여 대상 | 제니엘그룹 26개 팀 (참여 필수)

- ✓ 팀장을 리더로 하여 팀 단위로 참가
- ✓ 최종 발표 진출 시 팀장이 발표
- ✓ 진행 팀 규모가 큰 경우 2개 이상의 과제팀으로 나누어 신청 가능
- ✓ 필수 참가 대상이 아닌 팀도 전략기획실과 사전 협의 후 참가 가능

수행 과제 | 팀(조직)의 실제 업무를 기반으로 반복·비효율 업무를 개선하고, 생산성 향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AI Agent 제작

수행 방식 | 과제수행계획서 제출(공통) → AI Agent 제작 → 실제 업무 적용 및 개선 → 생산성 향상 효과 검증 → 결과 보고서 제출 및 발표

심사 방향 |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1·2차 심사를 진행하며, 최종 선정 5개팀은 팀장이 AI Agent를 시연하고 성과를 발표

일정 안내

구분	기간		내용
공지 및 접수	8/3(월)~8/7(금)	1주	과제수행계획서 제출
AI Agent 제작	8/10(월)~8/21(금)	2주	제작 웹앱 URL 제출
실제 사용 및 개선	8/24(월)~10/7(수)	6주	결과보고서 제출 ~10/7(수) 限 결과보고서(자유양식) 제출 - 개선사항 및 생산성 향상 효과 - 실제 사용 영상, 실제 URL
1차 심사 (전략기획실)	10/8(목)	1일	결과보고서 및 실제 사용 증빙자료 검토
2차 심사 (심사위원)	10/12(월)~14(수)	1주	생산성 향상, 실제 업무 적용성, 결과 검증 가능성, 확산 가능성 평가
최종 발표 및 시상	10/22(목)	1주	최종 5팀 성과 발표 및 AI Agent 시연 진행

상금 및 운영지원금

구분	내용		
상금	생산성혁신 금탑상	생산성혁신 은탑상	생산성혁신 동탑상
	200만원(1팀)	100만원(2팀)	50만원(2팀)
운영지원금	참여 팀별 운영지원금 10만원 (결과보고서 제출 必)		



2026 제2회 ZAIC (Zeniel GenAI Challenge) 개최

아이디어 제안을 넘어 '실사용·성과 검증' 중심의 대회로

제니엘이 그룹사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6 제2회 ZAIC(Zeniel GenAI Challenge)'를 실시한다. '제니엘그룹 생산성 향상 대회'를 부제로 내건 이번 행사는 제니엘그룹 내 총 26개 팀, 106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사내 AI 활용 프로젝트다.

제니엘그룹은 지난해 개최한 제1회 ZAIC를 통해 임직원의 AI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활용 경험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문서 작성이나 요약 등 일부 작업을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러 업무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올해는 대회 방식을 대폭 개편했다. 팀별로 업무 현장에서 반복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문제를 직접 찾아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를 제작한다. 참가팀은 과제 수행 계획서를 제출한 뒤 완성한 에이전트를 6주간 실무에 적용해 업무에 걸리는 시간과 처리량, 오류 발생 건수 등을 측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AI 도입이 업무 효율 향상으로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인 수치로 검증하며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후 본사가 두 차례의 심사를 거쳐 최종 5개 팀을 선정한다. 심사 과정에서는 아이디어 자체의 참신함보다 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지, 업무 효율을 얼마나 높였는지, 꾸준히 활용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선정된 팀은 개발한 AI 에이전트를 직접 소개하고 시연하는 기회를 갖는다.

우수 팀에는 생산성혁신 금탑상(1팀), 은탑상(2팀), 동탑상(2팀)을 수여하며, 참가팀 전체에는 별도의 운영지원금도 지급한다. 최종 선정된 우수 사례는 전사에 공유해 AI 활용 경험이 특정 팀에 그치지 않고 조직 전체로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처음이라 더 선명한 지금

제니엘 2026년 상반기 공채 신입사원 9인의 이야기





HR-Biz사업부 | 길하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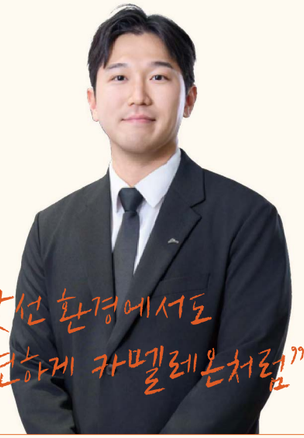


"꼼꼼하게 하나씩,
믿음직한 막내로"

입사 후 어떤 업무를 맡고 있으며,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무엇인가요? 현재 급여 관련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고 등록과 지원자 컨택 등 인사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제가 추천한 지원자가 최종 합격했을 때입니다. 지원자의 역량과 가능성을 살펴 좋은 인재를 찾는 일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제게 익숙하지 않은 산업의 인재를 선발할 때에는 먼저 해당 분야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를 설명하는 단어를 고른다면? '막내'입니다. 대학시절에는 후배들을 챙기는 선배로 지냈던 터라 회사에서 막내로 불리는 것이 처음에는 조금 낯설었습니다. 이제는 배우는 자리에서 많이 익히고, 언젠가는 든든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메디컬운영팀 | 곽준섭 |



"낯선 환경에서도
유연하게 카멜레온처럼"

입사 후 어떤 업무를 맡고 있으며,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무엇인가요? 메디컬운영팀에서 전담 거래처 현장에 대한 업무 지원과 전략과제 수립 등 사업부 공통 프로세스와 관련된 일을 맡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근 담당하고 있는 병원을 방문한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고객과 근로자들의 이야기를 가까이에서 들으면서, 책상에서 업무를 이해하는 것과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입찰 업무를 익히며 사업 수주를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그 과정이 어떻게 매출과 이익으로 이어지는지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설명하는 단어를 고른다면? '카멜레온'입니다. 낯선 환경에서도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주변의 흐름을 살피며 유연하게 대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컨택센터사업부 | 신승진 |



"한 번 더 고민하며
성장하는 사람"

입사 후 어떤 업무를 맡고 있으며,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무엇인가요? 신한라이프 콜센터, 건강관리협회 강원지부 콜센터 등 6곳의 도급 현장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원 관리, 입·퇴사 처리, 급여 및 운영비 정산 등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컨택센터 아카데미를 운영한 일입니다. 식순을 직접 구성하고 사회를 맡았으며, 예산 집행까지 챙기면서 행사 전반을 책임지고 준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사를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뿐 아니라, 교육에 참여하는 현장 관리자들의 일정과 입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살피며 운영 업무에 임하고 싶습니다.

나를 설명하는 단어를 고른다면? '한 번 더!'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한 번 더 도전해보자'고 마음을 다잡는 태도를 담은 말입니다. 업무에서도 지시받은 범위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배경과 핵심은 무엇인지,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한 번 더 고민하려고 합니다.



메디컬신사업팀 | 심영성 |

입사 후 어떤 업무를 맡고 있으며,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무엇인가요? 저는 신입사원 교육 후 물류사업부 운영파트에서 약 3개월간 근무한 뒤, 현재는 제니엘 메디컬신사업팀에서 간병인 플랫폼 개발과 관련한 IT 기획 및 운영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부서 이동 후 아직 2주 정도라 배우는 과정에 있지만, 플랫폼 설계를 시각화하는 플로우 차트를 직접 익혀본 경험이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새로운 업무를 배우면서 IT 기획의 흐름을 조금씩 이해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빠르게 실무에 적응해 플랫폼 활성화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나를 설명하는 단어를 고른다면? '긍정'입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깊이 받아들이면 지속적으로 일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부정적인 상황에 오래 머무르기보다 다른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주로 운동을 하며 마음을 다스립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잘 유지하는 것이 업무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HR-Biz사업부 | 유지원 |

입사 후 어떤 업무를 맡고 있으며,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무엇인가요? 각 현장의 직무와 인재상을 파악하고, 지원자의 이력서를 검토해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용은 합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사 후 근무자가 잘 적응하고 만족하며 일하는 것까지 연결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특히 제가 추천한 지원자가 꾸준히 업무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을 때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사람과 현장을 잘 연결하는 사원이 되고 싶습니다.

나를 설명하는 단어를 고른다면? '스프링'입니다. 평소에는 견고하게 서 있지만 어떤 압박이나 힘든 상황이 와도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사업혁신실 | 정연우 |

입사 후 어떤 업무를 맡고 있으며,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무엇인가요? AICC(AI 컨택센터) TF에서 상담 업무를 효율화하는 솔루션 조사와 경쟁사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AX(AI Transformation) TF에서 그룹의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개발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산 전공에서 배운 지식을 적용하면서 실무에는 어떤 역량을 필요로 하는지 고민해본 경험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앞으로 AI 활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업무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기획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를 설명하는 단어를 고른다면? '미어캣'입니다. 주변을 섬세하게 관찰하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업무를 할 때에도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합니다. 주변을 꼼꼼히 살피고 집중하는 태도가 업무에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컨택센터사업부 | 최연재 |

입사 후 어떤 업무를 맡고 있으며,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무엇인가요? 컨택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고객경험 향상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수님이 현장 관리자와 의견을 주고받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예의를 갖추면서도 편안하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며, 현장에서는 신뢰를 쌓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역시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를 설명하는 단어를 고른다면? '열심'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뜨겁게 타오르는 성격은 아니지만 어떤 일이든 대충 넘기지 않고 궁금한 것은 직접 해보는 편입니다. 취미든 업무든 스스로 시도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낍니다. 업무에서도 세부 사항과 마감까지 꼼꼼히 챙기며, 매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영업지원팀 | 한지수 |

입사 후 어떤 업무를 맡고 있으며,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무엇인가요? 현재 계약현황, 입찰 서류, 고객의견(VOC) 관리 등 다양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입사 후 처음 맡은 미션은 제니엘의 최근 5개년 계약서를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정리하면서 사업부별로 어떤 현장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보통계학 전공을 살려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대시보드 제작에 아이디어를 보탰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실무에 활용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나를 설명하는 단어를 고른다면? '쿼카'입니다. 쿼카가 사람을 좋아하는 것처럼 저도 외향적인 성격입니다. 새로운 사람과 어울리거나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어 지금 팀에도 잘 스며들 수 있었습니다.



HR-Biz사업부 | 황호경 |

입사 후 어떤 업무를 맡고 있으며,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무엇인가요? 현재 채용을 중심으로 근태·급여·청구 등 현장 운영 업무를 배우고 있습니다. 담당 현장을 직접 돌아보며 운영 방식도 익히고 있습니다. 입사 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선배들의 숙련된 업무 방식이었습니다.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때마다 바로 답을 찾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빠르게 업무를 익히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은 미숙하지만 신규 제안서를 준비하며 서류를 취합하는 등 제가 할 수 있는 일로 팀에 도움이 됐다고 느낄 때 큰 즐거움을 얻고 있습니다.

나를 설명하는 단어를 고른다면? '간식요정'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안부를 묻고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요즘 즐겨 먹는 간식은 '촉촉한 초코칩 옥수수맛'입니다!



"환자의 안전을 지킨 책임감"

아주대학교의료원 개원 32주년 기념 의료원장상 수상

지난 7월, 아주대학교의료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등 1,500여 명이 대피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제니엘 직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오로지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침착하게 대응했다. 그 결과 대규모 인원이 안전하게 대피했으며, 인명피해 없이 상황을 마무리하는 데 기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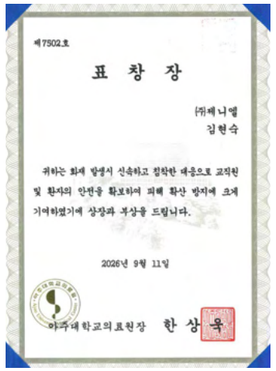

제7502호

표 창 장

㈜제니엘
김현숙

귀하는 화재 발생시 신속하고 침착한 대응으로 교직원 및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여 피해 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2026년 9월 11일

아주대학교의료원장 한 상 욱

간호보조용역사무실, 침착한 대피 유도와 현장 통제로 인명피해 'ZERO'

먼저 움직이고, 현장을 살피다

화재 발생 직후 현장의 제니엘 직원들은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주변에 대피를 안내했다. 담당 업무에만 머무르기보다 환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며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인 것이다. 이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한 주인의식은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원활한 대피를 이끄는 힘이 됐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 끝까지 책임지다

응급실과 수술실 등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고, 현장 여건에 맞춰 우회 동선을 안내하며 대피를 도왔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환자와 보호자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차분하게 현장을 통제하며 맡은 업무를 끝까지 수행했다.

대피가 끝난 뒤에도, 환자가 돌아올 때까지

큰 불길이 잡힌 이후에도 환자들이 병동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순차적인 복귀를 지원하고, 마지막까지 환자의 상태를 살폈다. 화재 대응이 마무리된 이후, 의료진으로부터 제니엘 직원들의 침착한 대처에 대한 감사와 격려가 이어졌다.

위기의 순간 빛을 발한 주인의식

이번 화재 대응은 특별한 한 사람의 활약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평소에도 아주대학교의료원 현장의 제니엘 직원들은 '내가 맡은 업무의 최종 목적은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책임감과 직업적 자부심을 바탕으로 업무에 임했다. 그렇기에 위기의 순간에도 자신의 역할에만 머무르지 않고 서로 협력하며 환자 한 명 한 명을 먼저 살필 수 있었다.

침착한 대응, 특별상 수상으로 이어지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제니엘은 아주대학교의료원 개원 32주년 기념식에서 의료원장상을 수상했다. 특히 이번 수상은 김현숙 관리실장을 통해 제니엘그룹의 현장 관리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결실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위기의 순간 행동으로 나타난 책임감은 아주대학교의료원과 제니엘이 함께 쌓아 온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함께 성장한 한 달

- 제니엘플러스 '능력향상 훈련' 수료식 현장



지난 9월 7일, 제니엘플러스는 발달장애인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능력향상 훈련' 수료식을 개최했다. 8월 10일부터 약 한 달간 이어진 이번 훈련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발달장애인훈련센터와 협력해 진행됐으며, 제니엘플러스 임직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 프로그램이었다.



교육을 넘어선 '동행'

프로그램은 직장예절, 고객응대, 대인관계, 자기이해, 스트레스 관리, 목표 설정, 사회적 소통 능력 등 총 7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장애인 전문교육자와 함께 개별 심층상담과 원예활동도 병행해 근로자 개개인의 특성과 정서까지 세심하게 살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달랐다.

참여자들이 전한 변화

훈련에 참여한 근로자들은 "내 강점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봤다", "동료들과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담당 교육자들 역시 회차가 거듭될수록 근로자들이 자신감을 얻고 동료와의 소통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모두가 함께 만드는 일터

최근 장애인 근로자의 인권과 근무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제니엘플러스는 관련 표준사업장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했으며 별도의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제니엘플러스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이번 프로그램과 같은 지원을 통해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구성원들의 작은 관심과 배려는 안정적인 일터를 만드는 든든한 밑거름이 된다. 이러한 마음이 모여 제니엘플러스와 제니엘그룹이 함께 성장하는 조직문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생성형 AI, 안전한 활용을 위한 3가지 수칙

생성형 AI는 자료를 정리하고 아이디어를 얻는 등 업무 효율을 높이는 유용한 도구가 됐다. 하지만 편의성만 좇다 보면 업무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부정확한 정보가 결과물에 반영될 수 있다. 잘 쓰는 것만큼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 업무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할 때 단계별로 챙겨야 할 보안 수칙을 살펴본다.

STEP 1. AI 서비스, '회사의 기준'부터 알아보기

AI 서비스마다 입력 데이터의 저장·활용 방식과 보안 설정이 다르다. 따라서 업무에 활용하기 전에 회사가 허용한 서비스인지, 회사에서 지정한 계정으로 접속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고, 입력한 데이터가 저장되거나 학습에 활용되는지, 대화 기록은 어떻게 관리되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편리하다는 이유로 개인 계정이나 승인되지 않은 AI 서비스에 업무 자료를 입력하지 말고, 회사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활용해야 한다.

한줄 POINT **'이 AI, 업무에 사용해도 되는가?' → 회사가 허용한 서비스인지 먼저 알아본다.**

STEP 2. 업무 자료, 입력하기 전에 '정보의 성격'부터 확인하기

외부 AI 서비스에 입력한 내용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송되며, 설정에 따라 저장되거나 학습 및 개선에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업무 자료를 활용할 때는 '이 정보를 외부 서비스에 입력해도 되는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개인정보와 고객 정보, 계약 내용, 미공개 사업 정보, 영업비밀 등 회사 보안 기준상 공개 금지된 자료는 AI 서비스에 입력하지 않는다. 업무상 필요하고 회사 기준상 허용된 경우에도 정보 범위를 최소화하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삭제하거나 가려야 한다.

한줄 POINT **'업무에 필요한 정보인가?' '외부 입력이 허용된 정보인가?' → 두 가지를 모두 검토한 뒤 입력한다.**

STEP 3. AI의 답변, 무조건 '정답'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AI는 학습 데이터와 연결된 자료를 바탕으로 답변을 생성한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정보나 잘못된 내용을 사실처럼 제시하기도 한다. 특히 법률·계약·재무·기술 등 정확성이 중요한 업무에서는 AI의 답변을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시된 출처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해당 내용을 뒷받침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식 원문까지 직접 대조해야 한다.

한줄 POINT **'AI가 알려준 내용 = 검토가 필요한 초안' 중요한 업무일수록 사람의 최종 판단을 거친다.**

한눈에 보는 생성형 AI 활용 수칙

- ☑ 회사에서 사용을 허용한 AI 서비스인가요?
- ☑ 외부 서비스에 입력해도 되는 업무 자료인가요?
- ☑ 개인정보·고객정보·영업기밀이 포함돼 있지 않은지 점검했나요?
- ☑ AI가 제시한 정보의 사실관계와 출처를 확인했나요?
- ☑ AI의 결과물을 최종 검토한 후 업무에 사용했나요?





제니엘, AX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AX-TF' 운영

제니엘이 '인공지능 전환(AI Transformation)' 역량을 전사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AX-TF'를 운영한다. 지난 8월 20일 킥오프를 시작으로 내년 1월 31일까지 약 24주간 진행되며, 선발된 AX 리더 12명이 참여한다. 제니엘은 이번 TF를 단순한 AI 학습에 그치지 않고, 업무 자동화와 프로세스 혁신 등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AX 리더 대상 전문 교육을 시작으로 그룹 공통과제와 사업부별 혁신과제를 발굴·개발하는 등 3단계로 진행된다. 개발한 과제는 실제 현업에 적용해 성과를 검증한다. 이와 함께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AI 교육을 병행해 AI 활용 역량을 조직 전반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제니엘그룹, 경영진&현장 핵심 리더 20명과 '상생·소통' 간담회 개최

제니엘그룹은 지난 6월 5일 본사 대교육장에서 그룹 내 주요 고객사 사업현장을 이끄는 현장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상생·소통' 간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제니엘그룹 임원진을 비롯해 케이지모빌리티·대한항공·한국공항·LG화학·두산전자BG·세방전지·OB맥주 등 주요 고객사 현장 대표자 총 20명이 참석했다. 프로그램은 ▲그룹 핵심 전략 및 경영 방향 공유 ▲현장 운영 우수 사례 및 노하우 발표 ▲현황 공유 및 고충 청취 토론 등이 진행됐으며 그룹의 주요 전략과 방향을 현장 리더들과 공유해 실행력을 높이고 조직의 비전을 내재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나누며 '원팀(One Team)' 의식을 높이고 상호 신뢰와 협력의 기반을 다졌다.



빌리버리, 2026년 상반기 전국 지사 분석회의 개최

특송 전문 브랜드 '빌리버리(Belivery)'가 지난 6월 26일 충남 천안 기업교육센터에서 '2026년 상반기 전국 지사 분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지사장과 본사 운영진 등 약 40명의 핵심 인력이 참석했다. 빌리버리는 전국 어디서나 균일한 배송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서비스 운영 기준과 현장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지역별 운영 노하우를 공유했다. 특히 오배송 최소화, 보안 배송 절차, 고객 응대 방식 등 우수 사례를 함께 살펴보며 전 지사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빌리버리는 앞으로도 전국적인 운영 기준을 강화해 고객이 어디서나 일관된 프리미엄 배송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제니엘, '2026 한국의 최고경영대상' 일자리창출 부문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제니엘이 지난 7월 23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6 한국의 최고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일자리창출 부문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조선일보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재정경제부·교육부 등이 후원하는 '한국의 최고경영대상'은 고객 중심 경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 사회공헌,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한 기업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선정해 시상한다. 제니엘은 다양한 산업 분야의 일자리창출과 고용 안정에 기여하면서 생산·제조·유통·물류·판매부터 의료·간병, 특송, 정부 일자리사업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경영 활동을 뒷받침하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박춘홍 제니엘 대표는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과 전문성을 접목해 산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미래형 HR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생산성대회
금탑산업훈장

ZENIEL

아웃소싱
제모스가 이끕니다



ZEMOS.
Zeniel Mobile System

(주)제니엘
www.zeniel.com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402 제니엘빌딩
대표전화 1588-1581 | 사업문의 02-580-0116